

“예전같진 않지만 위기는 결코 아니다”

‘책의 메카’ 40년 명성 뒤로 하며 잊혀져 가는 대학천 서적도매상

청계천 현책방거리와 인사동 고서점가에 못지 않은 책의 명소가 바로 종로 6가와 청계천 6가 사이 두개의 골목에 자리잡은 ‘대학천’ 단행본과 전집물을 주로 거래하는 이곳은 우리나라의 유일한 책 도매상가이지만, 일반독자들에게 낯선 곳이다. 소매를 하지 않는 탓도 있지만, 워낙 복잡한 거리의 한구석에 있어 그곳을 찾기가 쉽지 않다. 남북으로 이어진 좁다란 골목으로 자전거 한대 지나기도 벽찬이 대학천은 그러나 하루에도 수만권의 새책이 들고나는 그야말로 책천지의 거리. 1천개가 넘는 출판사의 책이 이곳을 일단 거쳐야만 전국의 크고 작은 소매서점의 점두에 나왔을 수 있다. 들어오는 책과 나가는 책, 거기에 서울의 변두리에서 책을 구입하려고 몰려온 소매상인들로 북적거리는 대학천의 모습은 책의 흐름을 보여주는 생동감 넘치는 전시장과도 같다. 그러나 책의 메카로 40여년의 역사를 쌓아온 대학천이 전과 달리 그 기세가 한풀 꺾인 것처럼 보여, 혹시 문화의 다른 현장들처럼 자취도 없이 사라지는 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을 갖게 한다.

출판계 규모와 유행의 거울

대학천의 역사는 4.19와 5.16이 일어났던 60년대초로 거슬러올라간다. 동숭동 대학로에 있던 옛서올대 문리대를 거쳐 흐르던 개울물이 이화로터리를 돌아 청계천으로 흘러들었다던 그 시절, 개천에는 학생상대의 싸구려술집들이 판자로 지어져 있었다. 그러다가 청계천이 복개되면서 이 술집들 자리에, 동대문 근처의 서점들이 하나 둘씩 모여 서점거리를 형성하게 되었고, 대학천이란 이름도 그래서 얻게 된 것이다. 어느 분야건 같은 업종의 가게가 한자리에 모이면 그만한 잊점이 생기게 마련. 그런 이유로 흠어져 있던 서점들이 벽하나 사이로 붙고, 새로 생기고 해서 당시의 대학천은 약 3, 40개 점포가 밀집되었고, 좁은 골목은 학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20대 초반부터 대학천에서 잔뼈가 굵은 이기하씨(전국서적상연합회 동대문지구조합장)는 “학생들이 오면 책을 사기도 하고 현책을 팔기도 했다”면서, “용돈이 궁하던 시절이라 도서관에서 슬쩍 해온 법서를 잡고 술집으로 가던 학생도 있었다”고 당시를 회상한다.

단행본을 모두 합해 기껏 2,3백종에 불과하던 초창기의 대학천은 소매서점들이 대부분이었고, 현교과서와 현책도 거래되었다. 서점

변변한 유통기구가 없던 시절

대학천은 책의 중간 기착지로서의

역할을 했으며, 책문화의 명소 가운데

하나로서 기억될 만한 곳. 그러나

주차난과 협소한 공간 등 열악한 환경과

인력난으로 인해 차츰 그 기세가

수그러들면서, 40여년 역사를 지닌

대학천의 해체설이 나오고 있어,

안타까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은 출판시장의 규모를 반영할 수밖에 없는 것. 대학천이 활기를 띠기 시작한 것 역시 63년경 월부판매방식이 도입되면서 5권씩 묶인 전집 물량이 늘어나는 시기와 때를 같이한다. 이른바 전집 붐이 일면서 대학천은 그 규모를 넓혀나갔는데, “을유문화사와 정음사에서 펴낸 「세계문학전집」이 대유행이었지만, 공급이 달려 거래가 힘들었고, 몇몇 서점들이 출판을 겸하던 때라 유사물을 만들어 덤핑으로 판매하는 예도 있었다”고 이기하씨는 전한다.

김형석교수의 철학에세이 10여권과 추리소설작가 고 김래성씨의 탐정소설들이 초유의 베스트셀러로 등극했고, 이어 무협소설 붐으로 대학천은 호황을 맞는다. 미처 책을 인쇄하지 못해 ‘딱지’를 배부하고, 나중에 배본을 할 정도로 붐볐던 대학천은, “먹물 문은 종이는 뭉든 없어 못할 정도”였다. 그렇게 다소간의 변칙출판이 6,70년대의 대학천의 모습이었던다면, 80년대를 앞둔 대학천은 새롭게 탈바꿈을 하고 그 성격을 변화시킨다. 주택의 보급확대로 책이 마치 ‘장식용 가구’로 여겨지고, 부모들의 열띤 교육열로 낙양의 지가를 올렸던 전집물이 서서히 퇴조하면서, 대학천의 서가는 사회과학서와 교양도서들로 차게 된다. 이 시기의 거래 주종도서 변화는 대학천이 도매기구로서의 역할을 맡게 되는 계기도 함께 가져다준다.

대학천은 우리 출판계의 규모와 유행 등을 그대로 반영하는 거울이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출판사를 길러낸 ‘친정’이 되기도 했다. 일컬어 중견이라 할 수 있는 10여개 안팎의 출판사가 사실 대학천 물을 먹고 자랐으며, 그런 출판사들은 유통구조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셈이다.

도매상가라는 말이 어울릴 수 있게 된 지 10



종로 6가와 청계천 6가의 경계선에 자리잡은 책 도매상가 대학천의 골목안.

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오늘의 대학천은, 전국적인 유통망을 갖추고 현재 약 1천5백여개의 출판사와 3천여개의 서점을 상대하고 있다. 등록된 6천6백여 출판사 가운데 출판실적이 거의 없는 출판사와 지역총판을 거느린 몇몇 대형출판사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출판사가 대학천과 거래한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다. 이런 거대한 외형으로 발돋움한 대학천의 ‘식구’는 모두 83곳. 작게는 2평에서 크게는 50여평의 점포면적을 가진 이 대학천 서점에 종사하는 종업원 수는 3백여명에 이르며, 전체면적이 5백평 정도인 대학천의 전시장과 창고의 책을 합치면 약 3백만권으로, 여기서 하루에 방출되는 책은 10만권 정도. 얼마전 서울시로부터 점유허가를 얻어 마련한 시장통 주차장에는 배본용역회사의 차량이 늘 북비는 대학천의 앞날을 불투명하게 보는 견해가 생기는 것은, 대학천이 안고 있는 몇가지 문제 때문이다.

재개발지역에 포함됐는지 하는 외부요인이 아닌 내부 문제로 대학천은 전과는 그 모습을 달리할 것이라 전망을 놓고 있다. 전병석씨(문예출판사 대표)는, “대형유통기구가 없는 가운데 대학천이 지금까지 물류센터로서 수행한 공은 큰 것이었지만, 앞으로 그런 역할을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대학천의 변화를 진단한다. 그런 생각은 대학천의 당사자들도 인정하는 바다. 우선 이른바 3D현상과 입지조건, 그리고 작업환경이 날로 열악해져 인력난이 날로 심각해지고, 교통난과 면적의 협소로 인해 늘어나는 물량을 감당하기 벅차 어려움이 더해가고 있어, 일부 규모가 큰 서점들은 이미 다른 지역에 창고와 사무실을 차리고, 대학천엔 일부를 남겨두고 있다.

“신축도 불가능하고 해서 2년전에 지점을

마련했다. 화물용 엘리베이터 등의 현대적 시설을 갖춘 지점이 있다고는 하지만, 대학천이 심장부이기는 마찬가지다.”

열악한 환경·교통난으로 해체설 나와

대학천에서 가장 먼저 지점을 개설한 송인서점의 이규영 전무는, “큰 도매상들의 지점개설이 결코 대학천의 위기는 아니다”라고 덧붙이지만, 사실 송인의 경우, 기존의 면적보다 3배가 넘는 확장을 했음에도 물량증가를 소화하지 못하는 형편이란. 개별적인 확장엔 한계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대학천의 도매상들은 공동의 노력으로 대처하기 위해 중형유통기구인 서울출판유통의 성사를 서두르고 있다. 또 얼마전 부지를 확정하고 가시화되고 있는 일산출판산업단지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대학천의 위기설은 그같은 유통기구들의 적극추진과 실현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증폭된 것이다.

40여년의 역사를 지닌 대학천이 일시에 없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대학천의 미래를 점쳐보면 몇가지 걱정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다. 유통기구도 없는 열악한 출판환경 속에서도 책의 중간 기착지로서의 역할을 해온 대학천이 단지 전근대적인 환경 때문에 서서히 버려지거나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다. 청계천 현책방이 현교과서나 참고서, 그리고 저질잡지 처리장처럼 변질되는 것을 보며 갖는 아쉬움을 대학천에서는 느끼지 않았으면 한다. 이럴 때면 의례 비교하게 되는 일본의 간다서점거리처럼 우리에게도 불편하지만 정감어린 서점골목 하나쯤은 남겨두었으면 한다. 최신식 대형서점과 그런 곳을 함께 갖고자 하는 ‘사치’ 인지는 모르겠지만. — 최태원 기자